

“가톨릭 교회의 말씀 전례에 따른 성경공부” 입문 자료 모음

1. 사마리아인들의 기원과 유다교 첫 열교(Schism)의 배경¹⁾

기원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Sargon II)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배를 당하였으며, 일부 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르곤 2세가 불러들인 바빌론, 쿠타(Cutah), 압파(Affa), 하마트(Hamath), 그리고 세파루아임(Sepharuaim)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이 민족들은 사마리아인(Samaritan)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2열왕기 17,24).

남쪽의 유다 왕국의 경우에 있어 기원전 587/6년에 마지막 바빌론 유배가 있기까지 사마리아인들과 남쪽 유다 왕국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²⁾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돕기 원하였을 때에, 이들의 제안은 거절당하였다(에즈라 4,2-3). 이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00년경에 그들 자신의 신전을 그리짐 산(Mount Gerizim)에 지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인종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며 신앙적으로 타협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갈릴래아 지역까지 가는 데에는 약 사흘이 걸린다.³⁾

- 1) 출처: 본 해설서 시리즈의 가해 사순 제3주일 복음 말씀(요한 복음서 4,5-42) 해설에서 발췌.
- 2) 참고 :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에 의하여 총 세 번의 유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유배는 기원전 605년, 두 번째 유배는 기원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 전체 백성들의 유배는 587/6년에 있었음.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해 연중 제11주일의 제1독서 해설을 보라.
- 3) 참고1 :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대왕인 키루스 2세(Cyrus II)에 의하여 바빌론이 정복당한 후에, 키루스(Cyrus)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은 나라의 왕이 되고 또 그에 의하여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야훼 하느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무려 140여 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이미 하였었다는 사실을 키루스 2세가 알고는, 기원전 538년에 키루스 2세는 원하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도 좋다는 칙령을 공포하였다(에즈라 1,1-11).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이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공사 완공 포함)을 이룩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곧바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나, 유다인들은 이미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이고

2.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및 에세네파의 기원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기간 중의 역사로서, 기원전 323년에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휘하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의 마케도니아 출신 장군이 셀레우쿠스(Seleucus)였다. 셀레우쿠스 장군은 매우 광활한 옛 바빌론 지역인 중동 지역(현재의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지역 포함)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와 그 후손들이 세운 왕국이 셀레우키드 왕조이다.

이 셀레우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왕은 특히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하였고, 기원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 우상(idol)인 그리스 신들을 모시게 하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이것이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큰 반감을 불러 일으켜, 마타티아스(Mattathias)와 그의 다섯 아들들, 특히 유다 마카베오(Judas Maccabeus)의 맹활약으로 기원전 161년에 드디어 마카베오(Maccabean) 반란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반란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 이후 기원전 36년에 로마제국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나, 유다

또 주변의 다신교적 풍습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유대인과는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전의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 및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여, 이들 공사가 여러 번 중단되기도 하였다(느헤미야 6,1-13). 즉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참여 대신 방해 속에서도 기원전 516년 무렵에 4년 정도 걸려서 재건되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그 이후 거의 40여 년 동안 성벽이 없는 성전으로 유지되어야 하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해 연중 제3주일의 제1독서 해설을 보라. 또한 구약 성경의 에스라기 및 느헤미야기를 보라. 느헤미야는 사제가 아니었다.

참고 2 :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의 재건 참여가 거부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의 재건이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도 금지되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혼인을 하는 것도 금지되자, 사마리아인들은 드디어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그들 독자의 신전을 그리짐 산(Mount Gerizim)에 기원전 400년경에 지었으며, 이를 시점으로 하여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유대교로부터의 종교 분열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건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거짓 경배자들로 이루어진 이단적이고 열교적인(schismatic) 집단이었기에, 그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다 신교를 믿는 자(pagans)들보다 더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짐 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신전은 기원전 128년에 파괴되었다.

자료 1: http://ch.catholic.or.kr/pundang/4/flatlux2000/SAMARITANSBrief_History.htm

자료 2: 사마리아인이 언급되는 성경구절 모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flatlux2000/SAMARITANSScriptures.htm>

4) 본 해설서 시리즈의 가해 대립 제2주일 해설서에서 발췌하였다.

인들은 독립된 왕국을 유지하였는데, 이 왕국을 마카베오(Maccabean) 왕조 혹은 하스모니(Hasmoneans) 왕조라고 부른다.⁵⁾

이 왕조 초기인 기원전 141-134년 기간 중에,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왕좌를 차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에세네(Essenes)파가 나타나 분리주의 운동(separatist movement)을 시작하여 [지난 1948년에 ‘사해 문서(Dead Sea Scrolls)’가 발견된] 쿰란 동굴 근처 지역에 수도원(Monastery of Qumran)을 세웠다. 또 기원전 141-104년 기간 중에,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가 유력한 유대인 종교집단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다.

유다 광야는 팔레스티나 지역의 중앙 지역에서 요르단 골짜기 및 사해로 내려가는 남북으로 길게 발전한 급한 경사 지역으로서, 아래의 각주에 있는 인터넷 지도에서 ‘Wilderness of Judea’로 표시된 지역이다.⁶⁾ 요르단 지역에서의 세레란 표현은, 세레자 요한이 아마도 예리코(Jericho)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르단 강 근처에서 설교를 하였을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에세네파가 거주하였다고 믿고 있고 또 1948년에 사해 문서들이 발견된) 쿰란(Qumran) 지역으로부터 단지 3-4마일 떨어져 있다. 요세푸스(Wars of the Jews 2.8.2-14 §119-166)는 에세네파를 유대인 3개의 철학적 무리들 중에 한 집단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두 집단들은 바리사이파(Pharisees)와 사두가이파(Sadducees)이다.

사두가이파는 부활, 천사 혹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바리사이파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613개 규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에세네파 유대인들은 금욕주의적 신비주의적 삶을 살고 독신주의를 실천하였으며, 보통의 삶을 살았고, 또 재산은 공동 소유로 하였다. 이들의 평상복은 이들이 양성한 도덕규범들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다. 이들 또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수반된 성전 제물 예식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피가 수반되지 않는 희생제물용 성전 봉헌은 하였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에 바리사이파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집단(religious group)이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law of Moses)을 엄격히 지켰으며, 또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구전(oral traditions)들을 엄격히 지켰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

5) 구약 성경의 마카베오 1서 및 2서는 이 유다 마카베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이들 경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6) http://ch.catholic.or.kr/pundang/4/map/israel_first_century.htm

4 __ 가톨릭 교회의 말씀 전례에 따른 성경공부 해설서

과 같은 수준으로 구전에 의한 전통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리스적 다신교주의(Greek paganism)의 영향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반대하였고, 또 로마 제국에 충성서약(homage)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진실로 경건한 자들도 있었으나, 광신(fanaticism), 자만(pride), 그리고 위선(hypocrisy)과 같은 극단에 이를 정도로 형식주의적 신앙(pharisaical religiosity)으로 과장하는 자들이 많았다. 참된 이스라엘적 신앙(Israelite religion)을 이런 지경으로 왜곡한 것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혹평하였다(castigate). 모세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두가이파는 바리사이파보다는 작은 종교적 집단이었으나, 주된 사제 집안(priest families) 출신들로 이루어진,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들로 이루어진 기록된 율법(Law)만을 경전(Scripture)으로 받아들이고, 바리사이파들과는 달리 구전(oral tradition)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모세 오경(Pentateuch, 즉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불리는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에 기록되지 않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resurrection of the dead)과 같은 중요한 신앙적 진실들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당시에 성서적 근본주의자(biblical fundamentalists)들이었다.] 이들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포고된 규정들을 쉽게 수용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당시의 지역에 다신교적 풍습(pagan customs)이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는 바리사이파의 반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명되었다.⁷⁾

7) 당시의 연대표는 http://ch.catholic.or.kr/pundang/4/flatlux2000/Judeo_Xn_History.htm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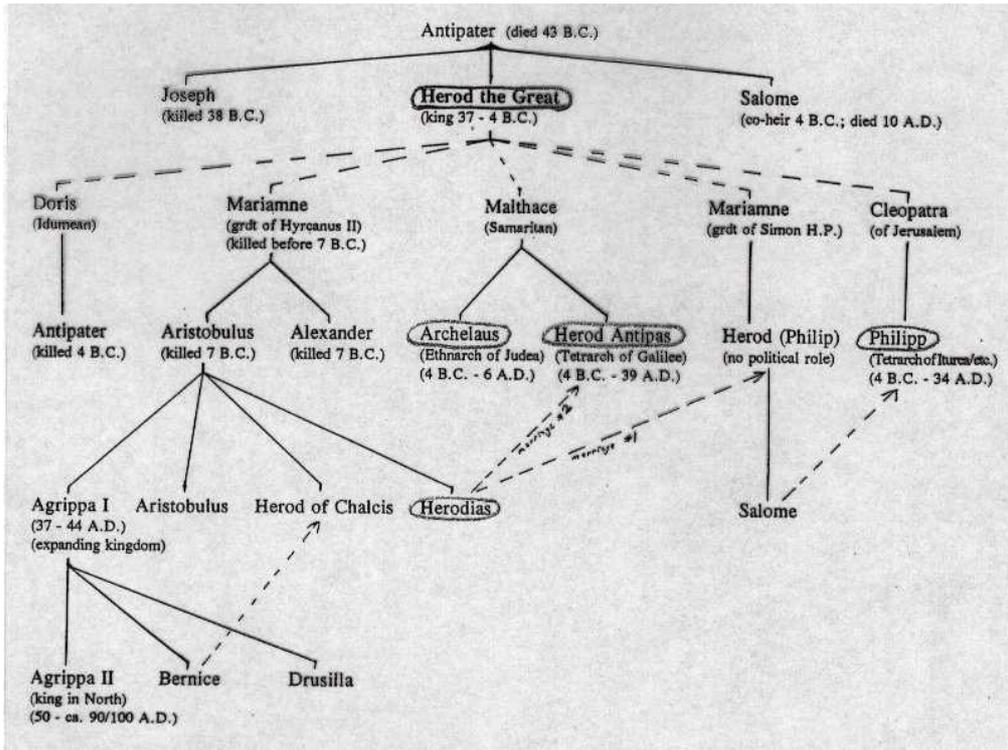
3.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분리 시기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당신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적용된 이 내쫓음은 다소 공식적이지 않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유다교 측에서의 공식적인 파문은 ‘하찮은 자들(minim)’ 혹은 이단자들(heretics)에게 대한 저주가 회당에서의 아침 기도문들의 모음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기존의 ‘18개의 축복들(18 Benedictions)’에 12번째 기도문으로 추가된(그래서 축복 기도문이 18개에서 19개로 이루어지게 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랍비들이 모여 개최한 암니 회의가 있었던 기원후 85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⁹⁾

기원후 1세기의 기록인 『디다케(Didache, 12사도들의 가르침)』는 ‘18개의 축복들’ 대신에 ‘주님의 기도’가 하루에 세 번씩 암송되었다고 말한다.¹⁰⁾¹¹⁾

-
- 8) 본 해설서 시리즈의 가해 사순 제4주일 복음 말씀(요한 복음서 9,1-41) 해설에서 발췌하였다.
- 9) 참고 :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한 여러 차례의 공격에 의하여 완전하게 파괴되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Followers of the Way 및 Nazarenes, 나중에 이들은 그리스도인(Christians)들이라고 불림]들은 (요한 묵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로마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몸을 피신하였고, 또 주된 사제 집안 출신들로서 당시에 로마에 우호적이었던 사두가이파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근거를 잃어버려,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바리사이파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만 회당에서 서로를 대하게 되었던 성전 파괴 이후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상기하라. 성전 파괴 이전에 에세네파와 열혈당원들은 로마에 반기를 들다 거의 다 소멸되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느라 성전 파괴 과정에서 거의 다 소멸되었음.
참고자료 1: 본 해설서 시리즈의 가해-I 대림 제2주일 제1독서 및 복음 말씀의 해설을 참고하라.
참고자료 2: <http://ch.catholic.or.kr/pundang/4/flatlux2000/EighteenBenedictions.htm>
- 10) 참고 : 여기서 디다케는 ‘사도를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훈’ 혹은 줄여서 ‘12사도들의 교훈’으로 불리는, 기원후 1세기경에 시리아 지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자 미상의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 규범서를 말하는데, 초대 교회 시절에 신약 성경의 제2경전으로 채택될 것도 한 때 논의되었고, 또 가톨릭 교회의 일부 수도원들의 규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문헌으로서,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중요 문헌들 중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1: 다음은 디다케 영문본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didache.htm>
참고자료 2: <http://www.newadvent.org/cathen/04779a.htm>
- 11) 이 구절은 가해 부활 제3주일 제2독서 해설에서 발췌한 것으로, 암니 회의의 이러한 결정 이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18개의 축복들’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된 것에 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제2767항의 설명은 다음의 자료에 있다:
참고자료 4: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770.htm>

4. 헤로데 대왕의 가계도



▲ 헤로데 대왕(Herod the Great) 가계도

출처 : http://ch.catholic.or.kr/pundang/4/fiatlux2000/herodian_tree.htm

5.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 입문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942.htm>

우선, 해당 년도를 3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가 "1" 이면 "가해(영어로는 Cycle A)", 나머지가 "2" 이면 "나해(B)", 나머지가 "0" 이면 "다해(C)"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2010년인데 이것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전례력에 있어 "다해"로 불립니다.

매년 전례력의 기준은 "부활 대축일"인데, 춘분 다음 보름달(유대교의 니산 달 제 14일에 해당) 다음의 제일 가까운 일요일이 "부활 대축일" 날짜로 잡힙니다. 달의 움직임, 즉 음력이 개입되므로, 부활 시기 시작과 끝 부분은 약 한 달 정도가 유동적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 보다 4주 전에 (매년 전례력의 첫 시기인 4주 동안의) 대림 시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11월 마지막 주일 즈음에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인 다해(2010년)의 시작은 2009년 11월 말경에 있는 대림 시기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 시기에 이어지는 시기는 성탄 시기인데, 이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약 12일 정도의 기간인)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이며, 이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주일은 "주님 세례 축일"로서, 이 주일이, 주신 질문에서 언급하신 연중 시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 다음 시기인 사순 시기는 매년 변하는 부활 대축일 날짜로부터 거꾸로 헤아려서 사순 시기의 시작일인 "재의 수요일"이 정해지므로, 말씀드린 "연중 시기"의 끝부분 약 3주 정도는 가변적이며 "사순 시기"의 시작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약 40일 동안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부활 대축일"을 시작으로하는 부활 시기가 8주 동안 지속되며, 부활 시기의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쉬었던, 음력의 영향을 받는 부활 대축일 때문에 그 시차가 약 3주 정도 유동적인 연중 시기가 재개되어,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불리는 연중 제34주일을 끝으로, 한 해의 전례력이 끝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왕 대축일(연중 제34주일)"을 끝으로, 이에 이어, 그 다음 해의 대림 첫 주일이 있게 됩니다.

단,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다음 주일은, 해당 해의 연중 주일이 아닌, "삼위일체 대축일"을 경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은, 해당 해의 연중 주일이 아닌, "삼위일체 대축일"을 경축하는 주일의 목요일로 요일이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령 대축일"을, 그 다음 연중 주일로 이동하여 경축합니다.

참고: 그러나, 이 기간 중의 주간 매일 미사들 중의 제1독서 및 복음 말씀은, 해당 연중 주일의 주간 전례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가해 연중 주일의 복음 말씀들은 마태오 복음서에서 발췌되고, 나해 연중 주일의 복음 말씀들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발췌되며, 그리고 다해 연중 주일의 복음 말씀들은 루카 복음서에서 발췌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서의 말씀들은 매년 사순 시기 일부 주일들, 매년 부활 시기 대부분의 주일들 및 매년 일부 대축일들, 나해의 연중 제17-21주일(요한 복음서 제6장), 그리고 매년 전례력 상으로 중요한 주일(예를 들어, 매년 연중 제2주일 및 나해 그리스도왕 대축일)들에 복음 말씀으로 발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시기 동안의 주일 제1독서는 사도행전에서 발췌하고 있으며, 그 이외 시기의 주일 제1독서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발췌하고 있습니다.

주일 독서들로 발췌되는 구약 성경 및 신약 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cripture_index4lr.htm

주일 독서들로 발췌되는 성경 본문들에 대한 색인(영문)

<http://ch.catholic.or.kr/pundang/4/lectionary4mass.htm>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영문)

<http://catholic-resources.org/Lectinary/Statistics.htm>

(주일 및 주간 독서들에 대한 통계)

그리고, 매년 주일들 및 대축일들의 제1독서, 복음 말씀, 그리고 제2독서는 화답송과 함께, 다음에 말씀드릴 주간 매일 미사 중의 제1독서와 복음 말씀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관련이 되도록 선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에는, 복음 말씀 뿐만이 아니라, 특정 서간을 연속으로 학습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주간 매일 미사 중의 독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홀수 해와 짝수 해로 나눕니다. 그러나 주간 매일 미사 중의 복음 말씀은 홀수 해 짝수 해에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두 번의 예외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시기의 제1독서는 홀수 해 발췌와 짝수 해 발췌가 다릅니다. 연중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 있어서의 주간 제1독서는 또한 매년 동일합니다. (단, 한 두 번의 예외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소속 본당 사무실로부터 전례력/축일표 달력을 입수하여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력 상 첫 해의 시작인 대림시기 직전에, 각 가정당 적어도 한 부씩은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줄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필요시 자주 들여다 봅니다.

특히, 부활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성령강림 대축일"의 주간 월 - 토요일의 매일 미사 중의 제1독서 및 복음 말씀은, 그동안 쉬었던, 음력의 영향을 받는 부활 대축일 때문에 그 시작이 약 3주 정도 유동적인 연중 시기가 재개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전례력/축일 달력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년 그 날짜가 변하기는 하나 그러나 성탄 대축일까지의 주일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주일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연중 제34주일로부터 주일들을 거꾸로 헤아려 올라와 정해지는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의 연중 주일의 바로 직전 연중 주일(보통, 해당 해의 연중 8, 9, 10 주일 중의 하나)의 주간 월 - 토요일의 전례력을 따르므로, 이미 그렇게 마련된 전례력 달력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쉽고 또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1960년대 중반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공의회 "교회 일치 정신"에 의거하여, "전례력에 따라 성경공부를 매우 충실하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1969년에, 교황청 유관 부서에 의하여, 새로 개편된 가톨릭 교회 전례력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6. 매일/주일 미사 중의 독서들 및 복음 말씀 영어 듣기 사이트 안내 외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http://ch.catholic.or.kr/pundang/4/cbs.htm>

- (i)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매일/주일 미사 중의 독서들 및 복음 말씀에 대한 영어 mp3파일을 매일 들으면서, 영어 성경 및 우리말 성경 본문들을 또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ii) 가톨릭 전용의 EWTN-TV도 매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 (iii) 영한 사전들 및 고급 영영 사전(Merriam Webster Dictionaries)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i2el.htm>

(위 주소를 사용자 PC측의 즐겨찾기 추가 외)

기타 궁금 사항 연락처:

소 마태오 010-2744-7146